



미 증시, 경기민감주 약세 VS 성장주 강세

미국 증시 리뷰

28 일(월) 미국 3대 증시는 공화당의 인프라투자 추진 소식에도, 변종 코로나 확산 우려에 따른 경기 민감주 약세 VS 독점 규제 우려 완화로 급등한 페이스북(+4.2%), ARM 지분 인수완료로 상승한 엔비디아(+5.0%) 등 성장주 강세로 업종 및 스타일간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혼조세 마감(다우 -0.4%, S&P500 +0.2%, 나스닥 +1.0%). 업종별로는 기술(+1.1%), 커뮤니케이션(+0.8%), 유틸리티(+0.6%) 등이 강세, 에너지(-3.3%), 금융(-0.8%), 산업재(-0.5%)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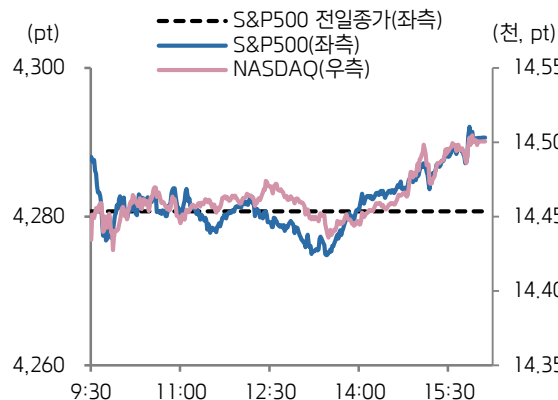
공화당 상원에서는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약 1.2 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투자 합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지난 금요일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투자 뿐만 아니라 가족 계획 법안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는 이상, 서명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발생. 그러나 주말 중 해당 발언을 철회했다는 점이 공화당의 인프라투자 합의안 추진 의사를 이끌어낸 모습.

미국 증시 평가

전거래일 경기 민감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인 배경은 인도발 변종코로나의 전세계 대유행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 영국의 일간 확진자수가 2 만명대를 상회하며 5 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독일, 포르투갈, 홍콩 등 주요 국가들은 영국 여행금지를 발표했으며, 호주에서는 일부지역들에 대한 봉쇄조치를 단행. 이로 인해 전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재차 부상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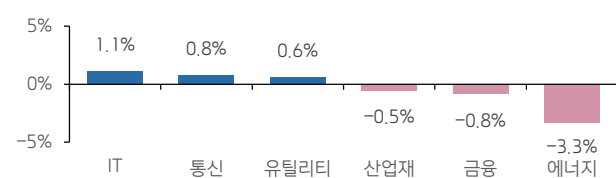
그러나 (돌파 감염의 사례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변종 코로나 확진자수가 백신 미접종자들 위주로 나타났다는 점, 변종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적다는 점(기존 코로나 대비 낮은 치명률)에 주목할 필요.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공포가 적다는 점을 감안 시 정부 입장에서 부분적인 봉쇄 조치는 취할 수 있겠으나, 지난해처럼 전면적인 경제 봉쇄 단계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 주식시장 입장에서 코로나는 이미 수차례 경험하며 소화한 악재인 만큼, 단기 차익실현의 명분을 제공할 수는 있어도 시장의 방향성에는 제한적인 영향만 가할 것으로 전망.

S&P500 일종 차트(6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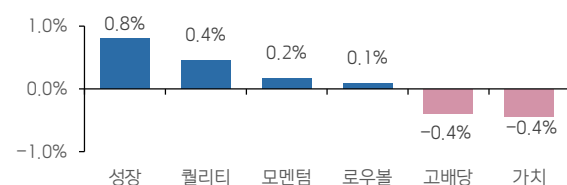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28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6월 28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1%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09%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08% 상승. NDF 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0.7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변종 코로나 우려로 인한 경기 민감, 경제 재개 업종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2. 미국 시장 금리 하락, 미국 성장주 강세가 국내 성장주들에게 훈풍으로 작용할지 여부 3. 하이브의 8,500 억원 블록딜 거래로 인한, 해당 주식의 일시적인 수급 혼란 경계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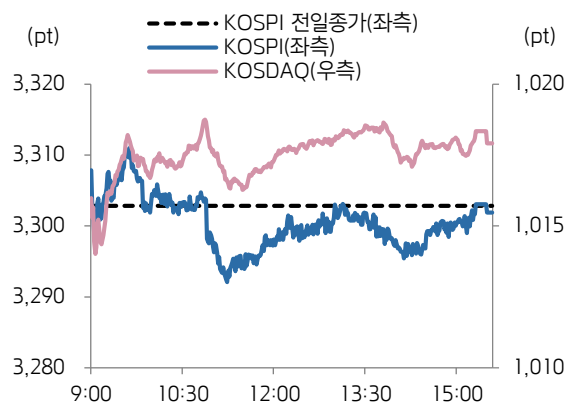
28 일(월) 코스피는 중간 배당 기대감, 경기 정상화 기대감 등에 따른 증권, 섬유·의복, 해운 업종 위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 3,310 선을 상회. 그러나 이후 단기적인 지수 레벨 부담감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성 동반순매도로 하방압력을 받으면서 약보합세로 마감(코스피 -0.03%, 코스닥 +0.6%).

업종별로는 섬유·의복(+2.38%), 종이목재(+1.6%), 증권(+1.2%) 등이 강세, 기계(-2.0%), 운수장비(-0.6%), 화학(-0.3%) 등이 강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40 억원, 3,040 억원 순매도에 나선 반면, 개인이 3,860 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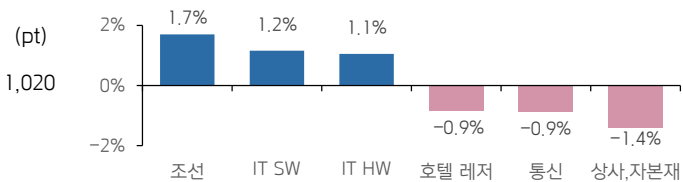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와 유사하게 업종간 차별화된 장세가 전개됨에 따라 일간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미국발 인프라 투자에 따른 전세계 경기 모멘텀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 인도발 변종 코로나 확산이 경기 민감, 경제 재개 관련 업종들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 최근 한은의 연내 금리인상 기정 사실화 이후 국내 시장 금리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으나, 국내 성장주들은 미국 금리 변화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향. 따라서 미국 10 년물 금리 하락,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함을 감안 시 금일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6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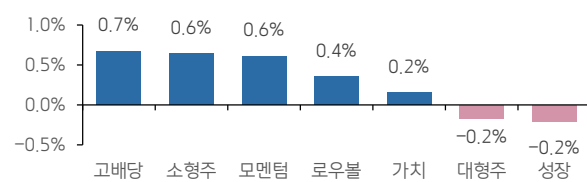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28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6월 28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